

## 이식 후 당뇨(PTDM)의 치료에 대한 Peroxisome Proliferator-activated Receptor Gamma (PPAR gamma) 자극제의 역할

메리놀병원

배수찬, 이동열, 공진민

PTDM의 기전은 부신피질호르몬 투여, 고연령, 유전적 요인 등에 의한 insulin 저항의 증가가 있으면서, insulin 저항을 극복할 수 있는 insulin 분비의 증가가 calcineurin 억제제에 의한 췌장 도세포의 손상으로 충분히 일어나지 않을 때 발생하는 것으로 보인다. 따라서 insulin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것이 PTDM의 중요한 치료 요소로 생각된다. Rosiglitazone은 최근에 도입된 약제로서 PPAR gamma를 자극하여 insulin 감수성을 향상시키며, 제 2형 당뇨의 치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.

저자들은 PTDM의 치료에 있어 PPAR gamma 자극제의 역할을 보고자 본원에서 추적중인 PTDM 환자를 대상으로 후향적 분석을 하였다. 2000년 8월 이후 32명(52±7세)의 PTDM 환자에 rosiglitazone이 사용되었으며 9예는 혈당이 회복되어 7±6개월 후 치료 중지 하였다. 나머지 23예는 평균추적 20±12개월 후인 현재까지 경구 혈당강하제를 투여 중이었고 이들 환자의 마지막 내원 시의 HbA1c은 6.1±0.2 mg/dl이었으며 insulin 투여 환자는 없었다. PTDM 발병 초기부터 rosiglitazone이 투여된 9명의 환자에서 insulin 투여기간은 5±6(0-22)일로 rosiglitazone이 사용되지 않았던 historic control에 비해 유의하게 짧았다. Rosiglitazone 이외에 metformin이 32예 중 28예에서, sulfonylurea가 12예에서 동시 투여 되었다.

**결론:** PPAR gamma 자극제로 insulin 감수성을 향상시키는 rosiglitazone은 PTDM 치료에 유용한 약제로 보이며 전예에서 insulin 없이 혈당조절이 가능하게 되었고, PTDM 발병 초기의 insulin 사용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었다.